

한인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은  
어떤사람들인가?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현황-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DACA 수혜 서류미비자들의  
숙고 사항과 경험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

한인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은 어떤사람들인가?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현황-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136-19 41st Avenue, 3rd Floor  
Flushing, NY 11355

Tel 718.460.5600

Fax 718.445.0032

[minkwon@minkwon.org](mailto:minkwon@minkwon.org)

Report created by Haegi Kwon and Sungmin Oh

Special thanks to Jake Dong, Jungrae Jung,  
James Hong, Stephanie Park, and Sherry Jiang

# 핵심 개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약 1,100 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의 서류미비자들이 연관된 정책 토론이나 논쟁에선 멕시코계를 필두로 중남미 이민자들이 주로 언급되었지만 실제로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그룹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본 설문조사는 뉴욕시의 한인 서류미비자와 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 수혜인들의 어려움과 경험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인, 아시안아메리칸과 이민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권익옹호, 시민참여,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민권센터는 두가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광범위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적인 수량 확보에 집중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설문과 관련된 질적으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드리머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와 개별 면담 형식도 병행했다.

설문조사로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86%는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82%는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 기회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77%는 기회 균등과 평등을 증진하도록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76%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법적 신분을 취득하는 경로(기회)와 이민정책의 향방에 대해 염려가 많다고 토론했다.
-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고용과 교육의 기회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론:

민권센터는 정책 입안자들과 입법부 의원들에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들의 대두와 해결 방안의 제시를 촉구한다. 그 결과로 뉴욕시가 서류미비자와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는 DACA 를 취득한 한인들이 정책 현안이 다루어지는 정치적 과정과 결과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개혁 관련 논의와 활동의 장에서 드리머들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

# 종합 보고

## 목적

본 설문조사 보고서는 DACA 를 취득한 한인 서류미비비자들에 대한 커뮤니티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조사 방법

설문조사의 응답 자료는 두 가지(다수가 참여하는 양적인 측면과 깊이있는 답변을 구하는 질적인 측면)를 동시에 고려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 광범위한 양적 응답 자료 수집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민권센터로부터 DACA 신청 및 갱신 서비스를 받은 수혜인들이 설문조사지에 직접 작성하거나 민권센터 웹사이트의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설문조사 실행과 응답 수집은 2016 년 4 월 22 일부터 7 월 29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15 명이 참여했다.

### 대면 조사를 통한 질적 응답 자료 수집

2016 년 2 분기에 포커스 그룹과 수 차례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DACA 수혜인들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실행과 응답 수집은 2016 년 6 월 2 일부터 7 월 14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4 명이 참여했다.

질적 응답 자료의 분석은 모든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질문별로 먼저 분류하고 이어 날짜별로 정리했다. 이후 보고서 집필자는 참여자들이 반복해 언급한 단어와 주제를 조사하고 정리해 특정 범주로 분류했다. 이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과 공통된 의견들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 설문조사 참여자 구성

참가자의 94%는 뉴욕시와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뉴욕시와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과 다카(DACA)수혜인들에 대한 내용이며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연령은 15 세 부터 33 세까지며 19 세부터 27 세까지가 다수를 이룬다. 성별은 56%가 여성이며 44%는 남성이다. 직업 분포는 70%가 학생이며 29%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좌담회 참가자들의 연령은 19 세부터 32 세까지이며 다수는 30 세 미만이다. 성별은 48%가 여성이며 52%는 남성이다.

## 한인 DACA 수혜인의 숙고 사항

서류미비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민권센터 오거나이저들의 경험에서 축적된 서류미비자들이 처한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네 가지의 현안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숙고 정도를 질문했다. 응답 선택은 네 종류로 구분했다.

-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약간의 관심만 있다.
- 중요하다고 여기며 가끔 생각한다.
- 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

네 가지의 중요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기회 증진
-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 기회 증진
- 서류미비자들에게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도록 요구하는 활동
- 기회균등과 평등을 증진하도록 아시안아메리칸의 역량 강화

조사 결과 1 에 따르면 각 현안별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혜택 기회

- 압도적인 비율인 86%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40%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46%의 총합) 건강보험 현안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의 참가자만이 건강보험 혜택 기회 증진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뉴욕주 운전면허증

- 76%의 참가자가 서류미비자에게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활동하는게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39%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38%의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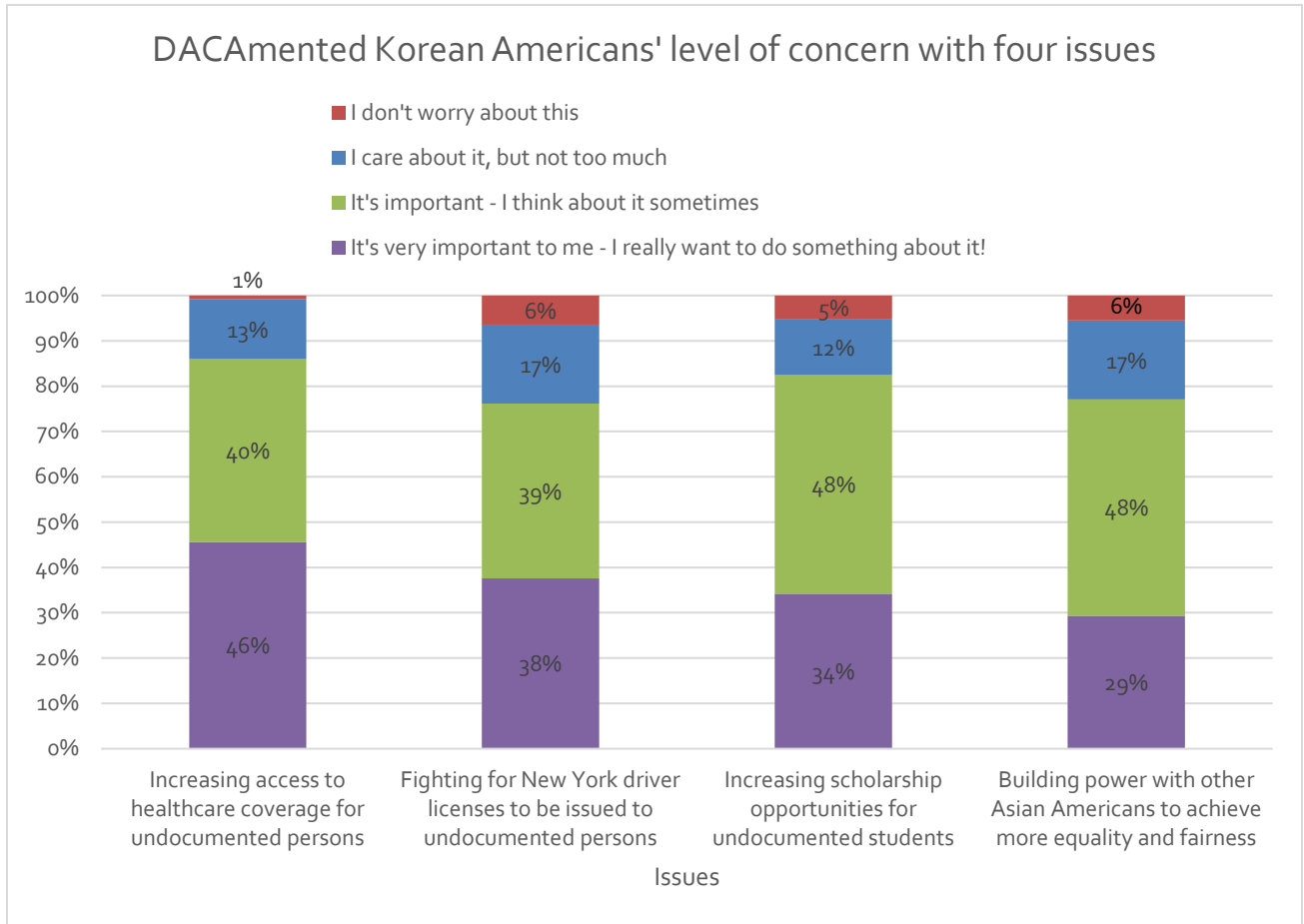
### 장학금

- 설문조사 참가자중 82%가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회의 증진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48%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34%의 총합)
- 포커스 그룹 대상 설문조사 자료도 위의 결과를 재확인한다. 참가자들은 힘든 경제적 여건과 학자금 납부 부담을 빈번히 언급했다.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 수혜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아시안아메리칸 역량 강화

- 77%가 기회 균등과 평등 증진을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48%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29%의 총합)
- 포커스 그룹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2016 년 대선과 대선 후보들의 이민정책을 숙고하고 있으며 대선 결과가 자신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다수의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법적 신분 취득을 포함해 개인의 삶의 향방과 정치적 결정이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한다.



조사 결과 1: 한인 DACA 수혜인의 숙고 사항

#### 좌담회 토론 내용과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에서 제기된 숙고 사항

다음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형 질문의 형식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추가 숙고 사항들이다. 위의 설문조사와 동일한 방법인 광범위한 양적 온라인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질적 대면 조사를 병행한 결과다.

#### 이민과 안정적인 신분

- 설문조사 참가자중 33%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질문한 추가 숙고 사항으로 이민 정책과 좀 더 안정적인 신분 획득 경로라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DACA 수혜인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포커스 그룹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는 재확인되었다.
-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법적 신분 상태와 개인의 삶의 기회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달리말하면 법적인 신분이 개인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회와 자원의 획득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증언:

- “서류미비자인 상태는 하고자 하는 많은 일과 어떤 사람이 되는 지를 결정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 “어렸을땐 학교와 진로 문제에 직면하죠. 좀 더 나이가 들면 결혼과 경력상의 목표로 고민하고, 거기서 더 나이가 들면 가족들이 안녕을 고민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죠.”
- “신분은 언제나 제 미래의 걸림돌이죠. 매일 그 점을 느끼고 여행을 갈 때조차도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청 이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제 제 어머니의 은퇴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집 때문에 용자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신분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를 구입하거나 용자를 받을 때도 항상 신분이 문제입니다.”
-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또한 법적 신분(정확히는 서류미비 신분) 감정적,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나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스트레스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DACA 취득 이후에 “밤에 잠을 더 잘 잔” 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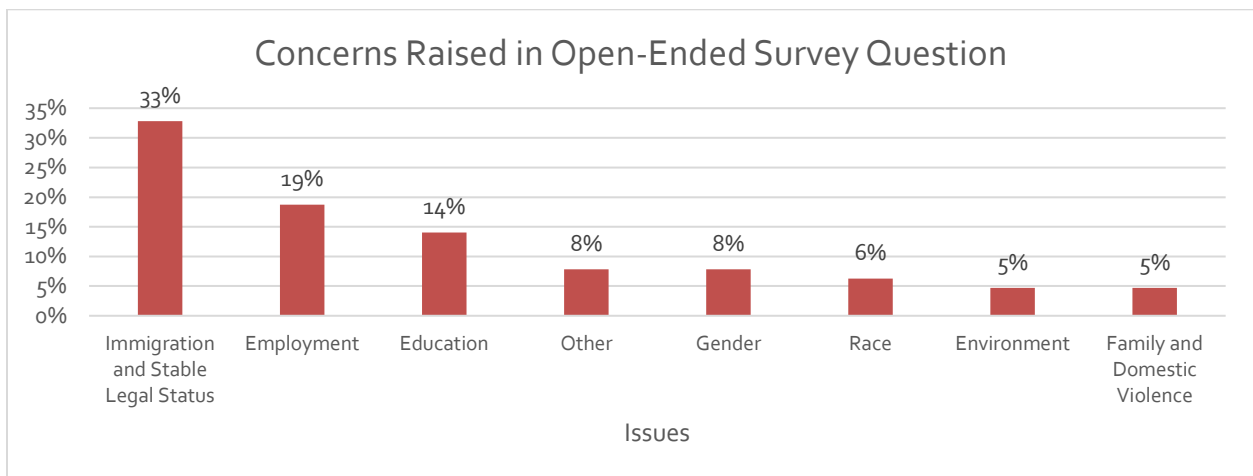
### 취업

- 설문조사 참가자중 19%가 취업이 주요 숙고 사항의 하나라고 응답했다.
-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고용주들이 종종 신분때문에 고용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준수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DACA 취득 이전에는 돈을 벌려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 설문조사 참가자들과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DACA 취득 이전과 이후에도 공히 취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포커스 그룹 참가자중 한 여성은 가장 큰 어려움을 설명하며 “좋은 일자리에 취업... 그러니까 제 말은 DACA 로 노동 허가증이 있으니 이전보다 더 낫은 직업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특종 직종엔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는 신분을 밝히길 요구하는데 거기에 응답하면 고용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차별이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 교육

- 설문조사 참가자중 14%는 교육이 숙고 사항의 하나라고 응답했다.

- 장학금이나 학자금 보조가 한인 DACA 수혜인들에게 주된 숙고 사항이지만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교육적 접근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일부 교육 기관(학교)은 DACA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입학에 거절한다고 증언했다. DACA 수혜인들의 입학에 허용하는 교육기관(학교)의 경우에도 서류미비 학생들과 다카(DACA)수혜인의 입학 신청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효율적인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한 참가자는 어느 학교에서 “이 소셜 번호로는 입학 신청서를 접수 할 수가 없” 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 “대다수 학교가 DACA 수혜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처리에 미숙합니다.”
- 학교의 일부 행정 담당자들은 즉흥적이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등 고등 교육의 기회를 찾으려 겪은 기타 문제들도 제기했다.
  - 한 참가자(DACA 취득을 앞둔 사람으로 보이는)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학교에 제대로 된 정보가 부재해 일년의 시간과 상당한 돈을 허비했습니다.”



조사 결과 2: 설문조사 개방형 질문에서 제기된 숙고 사항아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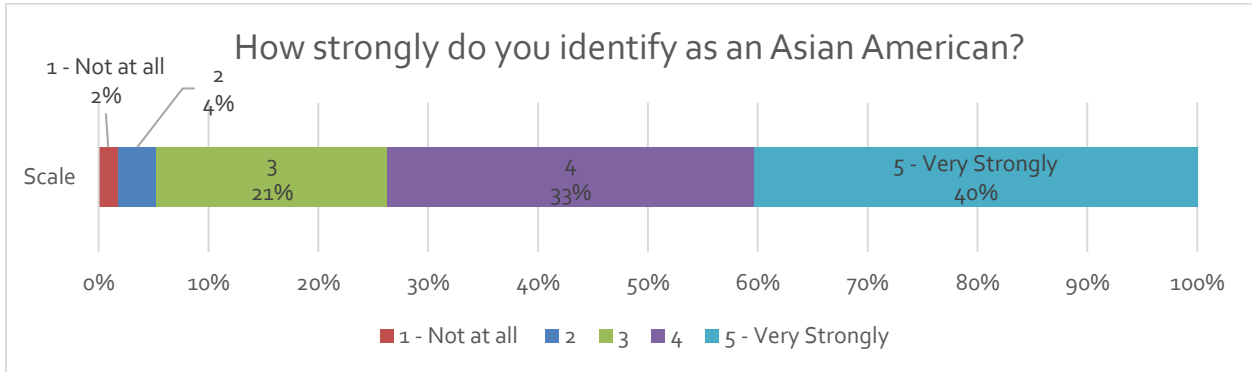
## 아시아아메리칸 정체성

총 57 명의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아시아아메리칸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전혀 못 느낀다(1)부터 매우 강하게 느낀다(5)까지 다섯 단계의 지수로 질문했다. '조사 결과 3'이 이를 수치로 표시한 도표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가자의 34%는 아시아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4 단계 지수라고 응답한 33%와 5 단계로 응답한 40%의 총합)
- 포커스 그룹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한편 아시아아메리칸과 코리안아메리칸 중에 선택하도록 질문하면 대체로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아시아아메리칸은 정체성으로 규정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범주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맥락(기준)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응답이 다를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코리안아메리칸으로 규정하고 싶지만 한인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그렇지만 한편 한인 것도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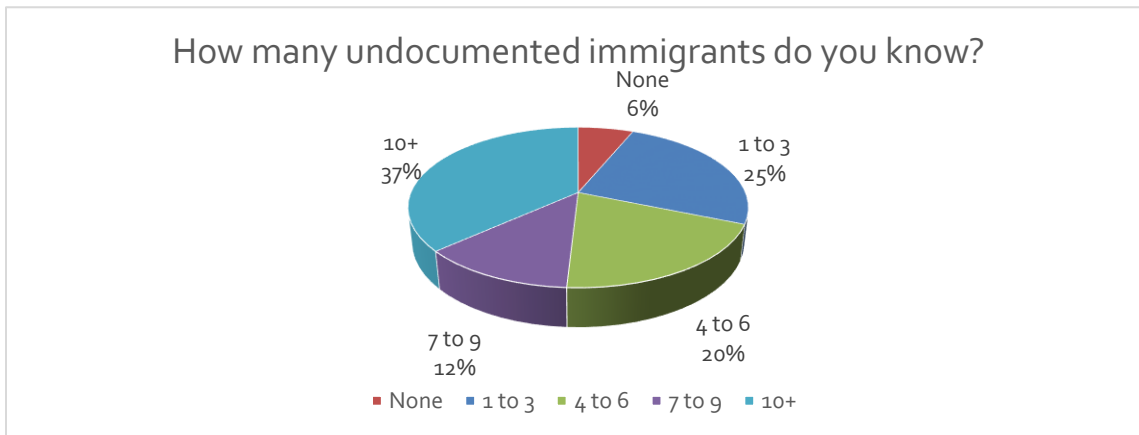


조사 결과 3: 아시아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 사회적 관계 형성

서류미비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몇 명의 다른 서류미비자들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조사 결과 4'는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수치로 표시한 도표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설문조사 참가자중 37%가 서류미비자들을 10 명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49%) 참가자가 6 명 이상을 안다고 응답했다. (10 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37%와 7 명~9 명이라고 응답한 12%의 총합)
- 6% 정도 만이 주변에 아는 서류미비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 포커스그룹 참가자들은 본인의 신분 노출을 매우 꺼려하거나 피했으며 종종 숨겨야 할 부담스러운 비밀로 여기고 있다. 참가자들은 친척이나 다른 서류미비자 친구 또는 이성 친구 등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본인의 신분을 밝혔다고 했다.
- 참가자중 한 명은 “굳이 친구에게 신분을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혹은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을 당할까봐 본인을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조사 결과 4: 몇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알고 있습니까?